

무더기 불법거래...외지인 아파트 투기장 된 광주

광주시, 외지인 분양권 다운거래·편법 증여 521건 적발 6~11월 외지인 매수 5723건으로 16% ...집값 폭등 초래 시 "투기세력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 나설 것"

광주가 외지인들의 아파트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점검한 결과, 외지인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편법증여를 통해 30세 미만이 1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 다운 거래로 탈세하는 등 불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운 거래 104건, 편법증여 417건 등 521건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11월 6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조사했다. 전체 실거래 신고 3만5576건 중 외지인 매수는 5723건(16%)이었다. 북구가 1644건, 광산구 1293건, 서구 1146건, 남구 1107건, 동구 533건 등의 순이었다.

외지인 매수인 거주지역은 전남이 3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56명, 경기 542명, 전북 411명, 경상·울산 318명, 충청 313명, 부산 224명, 대구 189명, 인천 72명, 제주 43명, 강원 35명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분양권 다운 거래는 사랑방 부동산 시세와 평균 차액이 5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104건(명)이 적발됐다. 매수인 거주지는 전남 62명, 전북 13명, 서울 10명, 충청 9명, 경기 3명, 인천 3명, 제주 1명 등이다. 편법 증여는 30세 미만이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총 41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1건, 경기 47건, 강원 5건, 인

천 9건, 충청 30건, 전남 189건, 전북 23건, 제주 3건 등이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과 남구 봉선동에 30년 이상·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시는 밝혔다. 외지인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을 노린 투기행위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아지 탈취제 논란' 지역 동물병원 고발 광주 남구청, 경찰에

광주시 남구가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던 지역 동물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동물학대 혐의로 주월동 A 동물병원을 고발했다. A 동물병원은 강아지 발치 수술 과정에서 탈취제를 뿌린 사실이 드러나 온라인 상에서 동물을 학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동물 견주는 수술 뒤 강아지가 사망하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온라인상에는 병원 관계자를 지탄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남구는 지난 7일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4차례에 걸쳐 탈취제를 뿌리는 모습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지 말라'고 탈취제에 적힌 경고 문구를 들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동물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문 대통령 화환 명판 훼손 국민의힘 관계자 벌금형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을 때어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직자였던 A씨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해 3월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 있던 대통령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을 때어 화환 뒤편 광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판을 때어낸 사실도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화의 기능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당시 당 대표 화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화환을 옮길 수 있는지 현충원 관계자에게 물어본 사정 등 중언위언이나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명판과 화환은 사회 통념상 사람들에게 누가 추모했는지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명판은 현충원 관리하에 있던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소원을 내려 주세요" 10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산타 마늘에 내린 소원쓰기' 행사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소원을 써 붙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위법"

광주지법, 서진건설 손 들어줘
이행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
광주시가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처분으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당좌수표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월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반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긴 데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고 책임을 물어 금융권에 예치된 당좌수표 48억원을 귀속시키려다가 서진건설측 반발로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과 관련, 서진건설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진건설이 광주

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이행 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행정절차법을 위반, 서진건설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도시공사 '사업협약체결 기한 내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기한 내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리니 양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정당한 절차·형식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권에 예치된 이행담보금

48억원의 반환 요구와 관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광주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진건설이 협상과정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할 상당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당좌수표는 사업협약이 체결된 경우 뿐 아니라 몰취되지 않은 채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면서 "광주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당좌수표 반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진건설의 당좌수표 반환 청구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봉현 회장 주장 과장 됐다" 이강세 대표, 불구속 재판 요청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추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에 과장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의 주장에 과장이 섞여 있다"며 "이런 정도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정탁한다며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일정을 늦추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10월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사전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월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초순에 종료되지만 검찰은 추가 기소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 증인 신문이 예정됐었으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 재판 준비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